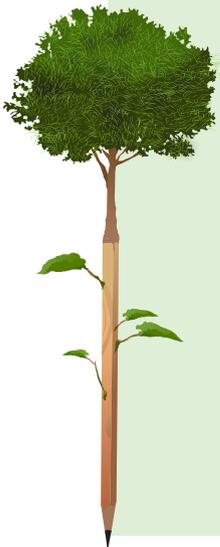




KLTA NEWS + 2013 Summer

KLTA NEWS

KLTA NEWS



산림청, 「제5회 나라꽃 무궁화 심포지엄」 개최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나라사랑의 의미와 함께 나라꽃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7월 3일(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무궁화 관련 민간단체와 관련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제5회 나라꽃 무궁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무궁화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나라꽃 무궁화의 역사적 고찰 ▲무궁화의 왜곡된 이미지 개선방안 ▲무궁화의 올바른 관리요령 ▲세계 속의 무궁화 분포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발표내용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평소 무궁화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도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사단법인 한국무궁화연구회 이종석 회장은 일반적으로 장미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경우가 많으나, 정작 나라꽃인 무궁화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무궁화를 알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 김기선 교수는 무궁화의 올바른 관리방법으로 나라꽃의 품위를 유지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꽃으

로 정착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궁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무궁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다가오는 8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제2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정호영 사무관(042-481-4227)

열차타고 휴양림가서 힐링하세요!!

국립자연휴양림, 코레일과 손잡고 '숲으로 떠나는 힐링열차' 투어상품 개발휴양림과 열차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 제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국립자연휴양림과 열차를 결합한 신개념 힐링 투어상품인 '숲으로 떠나는 힐링열차' 개발을 위해 6월 4일 오전 10시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투어상품 개발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열차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힐링열차 상품개발과 운영,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힐링열차 투어상품은 대관령, 가리왕산, 남해편백, 방장산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개발되며 7월부터 코레일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힐링열차를 중부내륙 순환열차, 백두대간 협곡열차 등 철도관광벨트 인근 자연휴양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난 6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산림교육을 위한 힐링열차 운영에도 참여해 올 한해 8회에 걸쳐 48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자연휴양림 3곳에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양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을 융합해 새로운 힐링 투어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숲과 호흡하면서 행복을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힐링열차가 국민들의 치유를 넘어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장병영 팀장 (042-580-5590)

산림진드기, 이렇게 하면 산행도 걱정 無!

적절한 예방법으로 살인진드기 걱정 없이 산림 활동 가능해



우리나라 산림은 연간 총 109조 원, 국민 한 사람당 216만 원 정도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산림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살인진드기'에 대한 걱정 때

문이다. 앞서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살인진드기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었고 국내에서도 강원과 제주에서 각 한 명씩 고령 환자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진드기 때문에 산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산림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면역력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난 3일 전했다. 살인진드기에 의한 피해는 SFTS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SFTS바이러스의 매개충인 작은소참진드기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의 전문가는 작은소참진드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확률은 0.5%이고 이 바이러스에 걸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도 치사율은 6%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할 확률은 0.03% 정도이다. 또한 진드기에 물렸더라도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할 확률은 0.03%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정영진 과장은 “살인진드기에 대해 다소 과장된 보도가 많다”며 “무조건 산행을 피하는 것도 건강을 악화시키고 삼림욕을 통해 우리 몸이 얻는 각종 면역력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미리 진드기에 대한 예방을 하고 적절히 산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SFTS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긴 바지와 긴 셔츠를 착용하고,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양말에 바지를 넣거나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다. 산행 시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적갈색의 진드기 확인 및 제거에 쉽다. 진드기는 주로 풀잎 끝에서 기다리다가 기주가 지나갈 때 달라붙기 때문에 수풀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특히, 진드기가 기피하는 물질을 이용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약국 또는 마트에서 구입 가능한 스프레이 또는 크림 제형의 기피제를 옷이나 노출되는 피부에 바르면 된다. 산림 활동 후에는 귀가 후 바로 온몸을 씻고 거울을 이용해 진드기가 달라붙어 있는지 관찰한다. 진드기가 피부에 달라붙어 물고 있을 때 무리하게 제거하면 머리는 남고 몸체만 떨어지므로 물린 상태에 있는 진드기는 핀셋을 이용해 천천히 제거한다. 또한 물린 부위의 염증 및 균이 인체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고상현 연구사(02-961-2662)

인도네시아에서 망그로브 숲 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지진 해일 방지를 위한 망그로브 시범림에서 기념 식수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7월 4일(목)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 함발랑(Hambalang)에 조성한 생태교육 모델 숲(Eco-edu Forest) 개장식 후 자카르타 북부 해안 까북 망그로브 숲 시범 조림지를 방문하여 지진해일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망그로브 나무를 심었다. 망그로브 숲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뺨이 있는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나무를 심는 방법은 바닷물에 대나무 통발을 설치하여 그 속에 뺨흙과 유기질

비용을 넣은 후 묘목을 식재하여 묘목의 활착율을 높이고 있다. 산림청은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아제 지역에 지진 해일이 발생하여 약 30만명의 인명 및 재산피해 그리고 해안가 3km 이상 식생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2006년부터 3년간 총 50만\$을 지원하여 550ha의 망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망그로브 숲 복원에 대한 양국 간 공동사업의 역사와 기록을 보존할 망그로브 숲 복원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26일 인도네시아는 망그로브 숲 보전을 위하여 발리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부부, 산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망그로브 조림 행사(Save Mangrove, Save Earth)를 실시하였으며, 세계적인 축구선수 호날두(포르투갈 출신, 현 스페인 레알마드리드 소속)를 망그로브 숲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망그로 숲 보전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의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이선미 주무관(042-481-4083)

한-인니 산림센터

조준규 사무관 (21-5785-2991,

0813-1424-5679)

동남권 명품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첫 출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7월 2일 휴양·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동남권 명품 숲 조성을 위한 대운산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대운산 인근 울산시 온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대운산 치유의 숲은 인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도심권에서 접근성이 높으며 숲이 지닌 다양한 요소를 통하여 가족단위의 휴식과 휴양, 산림치유, 산림체험 등이 가능한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울산시 시의원, 시청 및 군청 관계자, 인근지역 주민 20명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운산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은 11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되며 마음비움·마음채움·마음나눔·내려놓음·어우러짐 지구 등 5개 지구별로 구상하여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대운산 치유의 숲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사태 예방·대응 총력!!

2013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도전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3년 산사태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 한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춘천 마적산 산사태 등으로 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산림보호법 개정, 산사태 담당 조직 신설 등 산사태 예

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금년에도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 영향 시기 이전에 산사태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위기 대응 모의훈련과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하는 등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했고, 앞으로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점검·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대피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2년 산사태 피해지 491ha에 대한 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방댐 785개소, 계류보전 584km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도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집중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예측정보 전달체계 개편, 강우정보 분석 등을 기능 개선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금년에도 고도화함으로써 현장활용 능력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미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산사태의 신속·정확한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본부장:산림청장)”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 끝나는 10월 15일까지 기상상황에 따라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산사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기간이 빨라진데다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철저한 산사태 예방·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사전예방 위주의 산사태 재해관리 강화 및 현장 중심의 대응·복구체계 마련을 통한 피해확대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

문 의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박영환 사무관(042-481-4033)

